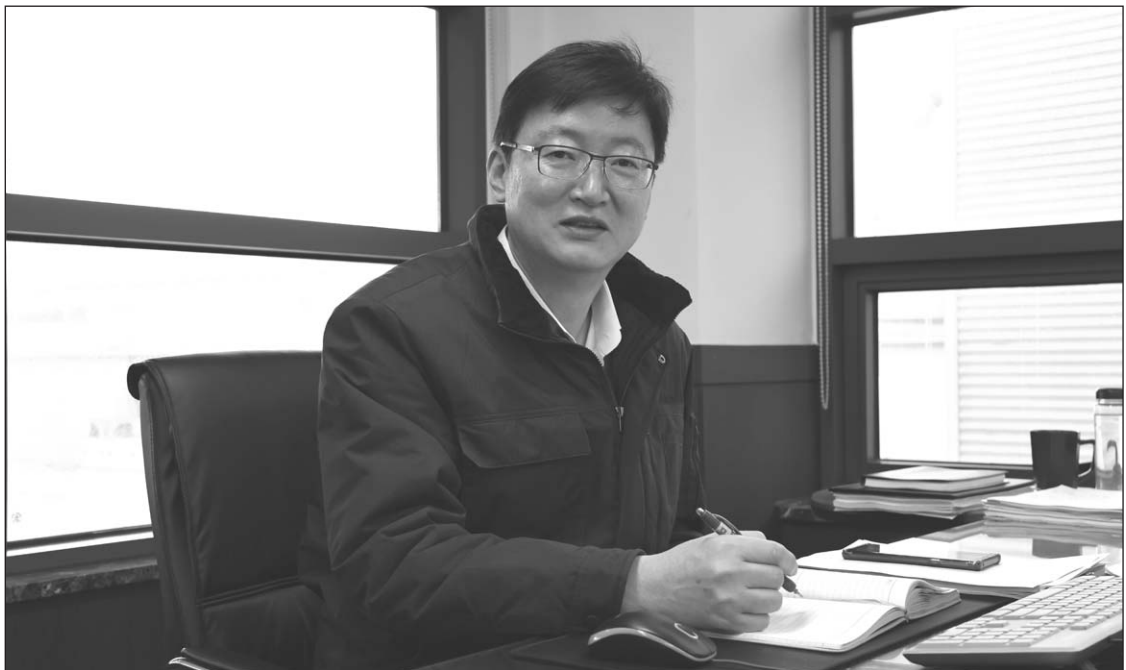


일등 기업으로 도약 준비하는 제이케이첨단소재(주)

재광기업은 1999년 11월 설립(창업주 강홍수 대표) 이래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설비투자를 통해 발전을 거듭했다. OPP, CPP, PET, NY, AL을 기본소재로 일상에 필요한 식품 포장용, 생필품용 필름뿐만 아니라 산업용, 전자 제품 보호용 필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고객사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왔다. 2004년 7월에는 보성지엔피를 세우고 인쇄, 합지, 제대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최상의 설비를 갖추고 연포장 기업으로 발돋움 시켰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재광기업은 2022년 10월 산업용 필름 전문회사인 제이케이첨단소재를 설립하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



▲ 제이케이첨단소재(주) 김웅걸 대표

적인 압출라인 제조사인 독일의 Reifenhauser(라이펜하우저)의 설비를 도입해 CPP 필름(Cast Polypropylene FILM)을 생산하는 제이케이첨단소재는 고객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충남 당진 공장에 국내 유일 Easy Tear 필름 라인인 CPP 생산 2라인을 설치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회사의 미래 먹거리 계획 등 제이케이첨단소재 김웅걸 대표를 직접 만나 미래상을 들어봤다.

‘고객 만족 위해 한 발짝 더’ 제이케이첨단소재 설립

식품용 포장지 제조회사인 보성지엔피는 우수

한 시장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그라비아 인쇄기 3대(9도, 8도, 6도)를 보유한 것은 물론, 완벽한 컬러 컨트롤러 시스템 및 품질 검사 시스템으로 생산 공정의 기술을 향상시켜나갔다. 프린팅, 라미네이팅, 열고착, 슬리팅, 실링 등 정교한 공정을 통해 한약, 커피, 건강기능 음료, 레토르트 식품 등에 이용되는 최상급의 엄선된 각종 파우치와 자동롤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보성지엔피는 내구성이 강한 실링 봉투를 만들어내기로 유명하다. 일반 가정용이 아닌 레토르트나 액상에 활용할 제품을 만들려면 특히 안 터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이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회사는 ‘안심팩’을 개발해 관련한 특허(가정용 식품포장용 비닐팩 12건)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 제이케이첨단소재 회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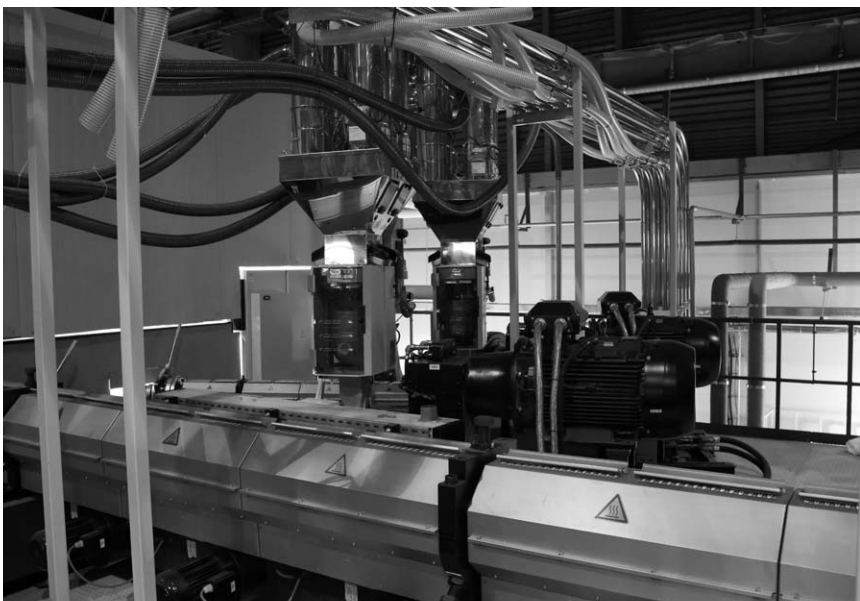
이외에도 보성지앤피는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조건으로 ISO22000, FSSC22000, ISO9001, ISO14000 등을 인증하고, 소비자 만족을 제1의 목표로 삼아 최상의 제품을 최저 가격으로 주문·생산하고 있다.

보성지앤피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재광기업은 보다 더 완벽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CPP 필름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대했다. 결과적으로 최종 생산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려면 포장재 안쪽에 자리하는 CPP 필름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화된 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진 것이다. 이는 곧 제이케이첨단소재를 설립하는 배경이 되었다.

회사 설립은 결국 고객 만족을 위해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할 미래의 '가치 투자'였다. 김웅걸 대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역시

'고객 만족'이다. 김 대표는 경영철학으로 논어자로 편에 수록된 고사성어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라는 말을 꺼냈다. '선정(善政)을 베풀어 가까운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소문이 이웃 나라에까지 퍼져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뜻이다. 사업가가 새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먼저 가까이 있는 고객과 회사를 위해 애쓰는 직장동료 등 주위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들을 더욱 정성껏 배려한다면 큰 감동은 자연스레 찾아오기 마련이다.

김웅걸 대표는 "우리 임직원과 고객의 니즈에 항상 귀를 기울인다면 더 좋은 사람과 일들이 알아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객만족을 위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해나가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 독일제 압출기(Extruder) 라인

국내 최초 5 Layer 설비와 베테랑 기술진 '포진'

1911년 안톤 라이펜하우저에 의해 설립된 '라이펜하우저'는 112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블로운 필름, 캐스트 필름, 시트 필름

및 부직포 생산을 위한 맞춤형 라인과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특히 플라스틱 압출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대 전문기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고도로 전문화된 사업부의 임직원(약 2000명)들은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 세계 고객들에게 성공적인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시장에서 최고의 공급업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라이펜하우저의 라인은 주로 식품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 유연한 포장 응용제품(CPP 또는 CPE) 생산을 위해 4개의 압출기가 있으며, 최대 5 Layer로 이루어져 있다.

제이케이첨단소재는 이러한 첨단 압출 라인을 제조하는 라이펜하우저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CPP 1호기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5 Layer 생산설비이며 내열성은 물론 열접착성, 내핀홀성, 내유성이 우수한 필름을 생산해내고 있다.

김웅걸 대표는 “보통 국내는 3 layer를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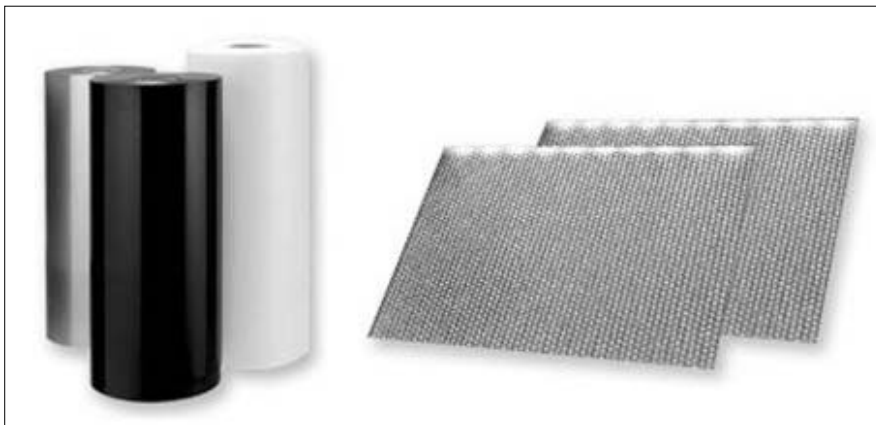
생산하고 있으나 5개 층인 5 Multi Layer는 그만큼 굉장히 질기고 충격에 잘 견디는 특성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이종간도 결합이 가능하기에 다양한 소비자의 품질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제이케이첨단소재는 수년간 필름을 생산한 우수한 전문 기술진이 최상의 결과물을 빚어내고 있다. CPP 필름에만 전념한 평균 근무연수 20년 이상의 베테랑 인력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준크린룸 설비 구축으로 더욱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Dosing기에 Magnetic을 부착하여 원료이물 침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세밀한 공정을 거쳐 제품을 만들고 있다.

‘식품 포장문화 선도하는’ JCP FILM...FDA 테스트 통과

JCP FILM은 재광기업 만의 30년 이상 축적된 기술 노하우로 탄생한 CPP 필름이다. CPP는 폴리프로필렌 베이스 필름으로 우수한 투명성과 광

택 등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내용물의 안정적인 보존과 최상의 열 접합 특성 때문에 살균 처리를 하는 레토르트 용도의 밀봉 필름뿐만 아니라 스낵 포장



▲ 사진 왼쪽부터 보호용 프리즘 시트, 보호용 라이트 가이드 판

등에도 탁월함을 발휘하는 소재다.

제이케이첨단소재의 생산제품 중 주 타겟은 레토르트 필름이다. 먼저 Retort General grade에는 120℃ 이하의 한약, 커피, 건강기능 식품 등 SR(Semi retort grade)과 120℃ 이상 두유 등 고온살균 제품을 다루는 HR(High retort grade)이 있다.

또한 충격 강도를 보강한 Retort Special grade를 생산하는데 참치, 조리밥 가공에 사용되는 HRI(High retort impact)와 카레, 펫푸드 등 냄새까지 잡아주는 HRIS(High retort impact strength) 등을 제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백필름인 WRI(White retort grade), WRIS(White + Low odor property)와 함께 충격에 강한 Special Grade로 5 layers인 GU(Slip 보강), GS(Seal용) 등도 생산하고 있다.

김웅걸 대표는 “우리 회사의 grade는 다른 회사보다 생산제품이 아주 함축되어 있다. 레토르트만 10가지나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지만, 우리는 SR,

HR, HRI, White 종류 정도다. 필름이 함축되었다는 의미는 그만큼 필름의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뜻인데 일본 등 선진국들도 필름 적용 범위가 넓다”고 말했다.

특히 완제품이 대외적인 공인을 받기 위해 지난 4월 5일 자사 생산품인 JCP-HRI, JCP-WRI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규정한 안정성 테스트(시험기관: UL VERIFICATION SERVICES INC./ Lab Report No. ARHL0988278)를 통과하는 등 단기간에 그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김웅걸 대표는 “지난해 10월 CPP 1호기가 들어온 후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였다. 이후 판매 가능한 필름이 2개월 만에 나왔다”면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기 마련인데 매우 획기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간 밤낮없이 열심히 일해 준 기술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당진에 세운 회사의 ‘미래’ 꿈이 영글다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에 소재한 제이케이

이첨단소재 공장은 대지면적 19933.70㎡에 이르는 너른 공간에 자리하고 있다. 지상 3층 규모의 공장은 총면적 5,350㎡(공장동 4,896.72㎡·사무동 370.16㎡·경비동 17.09㎡)



▲ 사진 왼쪽부터 세미 레토르트, 하이 레토르트, white 레토르트



▲ 제이케이첨단소재 공장 전경

에 달하며 현재 압출기(Extruder) 1라인과 슬리터(slit) 1라인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2023년 10월에는 새로운 설비가 추가된다. 설치 예정인 CPP 2호기는 국내 유일의 Easy Tear 필름 생산라인으로 Twist packaging 필름 생산(캔디, 콩나물, 야채, 빵류 등)도 가능하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에서만 가능했던 Easy Tear 기술도입으로 이제는 100% 국내 생산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웅걸 대표는 “Easy tear 필름은 소비자가 봉투 개봉시 자연스럽게 깔끔하게 개봉됨으로서 고객에게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필름이며, 또한 투명도가 매우 우수해 내용물이 돋보여야 하는 야채나 빵 종류의 경우 상품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필름이다”면서 “2호기 도입으로 회사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아이템 개발에도 속속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차전지 Cell Pouch 필름, 전자용 보호 필름, 건축 인테리어 산업용 필름, 자동차용 보호 필름 등의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도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2차 전지 시장 진출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2차 전지 CPP필름 시장 규모는 2020년 2,600억원에서 2025년 3,900억원, 2030년 6,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계획대로 전기차 비중이 50%가 된다면 2060년에는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웅걸 대표는 “2차 전지 폴리머백 안쪽에 CPP가 들어가는데 차 한 대에는 배터리가 수천 개나 들어간다. 그만큼 2차 전지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모든 것이 전기차 쪽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면서 “시장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다. 내년부터 시작 단계에 들어갈 테지만 포장산업의 안정화는 물론 2차 전지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포부를 전했다.